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HAPPINESS FOR BEGINNERS

가제 : 행복 농장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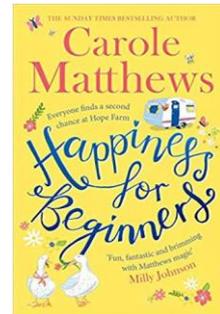
저자 : Carole Matthews

출판사: Sphere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 셀러

\*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 - 「Twelve Days of Christmas」의 저자, 트리샤 애슬리

서른 여덟 살 몰리 베이커는 비록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긴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영국 버킹엄셔지역, 외딴 시골마을에서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한 농장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네 발 달린 정겨운 친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이 특별한 농장은 때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대안 학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에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고 그를 보는 순간 몰리의 마음에는 작은 파동이 일어난다.

몰리의 삶은 분명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삶과는 달랐다. 그녀는 남들처럼 번듯한 집에 사는 대신 TV도 없는 구식 캠핑카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다 놓고 살고 있었고 그녀의 하루의 중심은 오로지 '행복 농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장 하나였지만 농장 수입으로 재정적 안정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사교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 사람보다는 동물들과 대부분의 하루를 보냈다. 그렇지만 가까이만 가도 사람을 들이 받는 양 '앤서니'와 언젠가 학대당한 쪽 눈을 잃은 개 '리틀 독', 다리 한쪽이 없는 '빅 독'과 같이 세상에서 버려진 동물들에게 있어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농장에는 이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양한 마리와 돼지, 토끼, 염소들도 있었는데 다른 평범한 농장들과는 달리 곡식을 기르거나 도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아닌 그저 동물들이 편안히 죽을 때까지 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다. 또한 그녀의 농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남들과는 조금 다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대안 학교이기도 했다. 그녀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농장에 와서

휴식과 안정을 얻고 집에 돌아가곤 했다.

원래 이 농장은 몰리의 대모이자 큰 이모인 헤티의 농장이었는데 어린 시절 이 농장에서 자란 몰리에게 큰 이모 헤티는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은 사람이었다. 몰리의 엄마 조안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터라 엄마 노릇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몰리의 친부 역시 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몰리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큰 이모 헤티 뿐이었다. 농장에서 만난 동물들과 이모와의 생활 덕분에 유년 시절의 고통을 이겨 낼 수 있었던 몰리는 이제 자신의 농장이 된 이 곳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사랑과 행운을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도 베풀기로 한 것이다.

농장을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는 계절성 정서 장애를 갖고 있는 카터와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스위니,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병을 가진 링고 같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동물들과 어울리며 상호 교감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도 유대감을 쌓는 법을 익혀가면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길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리저리 널려 있는 흙먼지와 진흙에 뒤 덮인 농기구들이 가득한 이 소박한 농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분위기를 풍기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이곳을 찾아왔다. 몰리는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기 위해 나갔다가 번쩍거리는 자동차만큼이나 말쑥하게 잘 차려 입은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영화 배우처럼 잘 생긴 얼굴에 근육질인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자신을 ‘셀비 데이커’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몰리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아들 루카스에 대한 사연을 찬찬히 설명하며 루카스가 이 농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루카스는 이미 여러 차례 칼이나 무력을 사용해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공격한 일들이 있었고 대마초까지 손에 댄 적 있는 사고뭉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교에 불을 지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학교에서 마침내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몰리는 차 안에 앉아 있는 루카스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좀 그 소년은 매몰차게 몰리의 악수를 거절했고 한 차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에서 내렸다.

TV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았던 몰리는 뒤늦게야 셀비가 엄청 유명한 스타라는 것과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은 루카스가 이후 바쁜 아빠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몰리는 루카스는 물론 셀비와도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마침내 농장 생활 외에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곧 몰리는 농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몰리는 농장 식구들과 아이들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될까? 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정감 있는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캐롤 매튜 (Carole Matthews)는 『Let's Meet on Platform 8』, 『A Whiff of Scandal』, 『For Better』 등을 포함한 서른 두 권의 소설을 쓴 바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제목 : THE SPLIT

가제 : 갈라진 빙하 틈 사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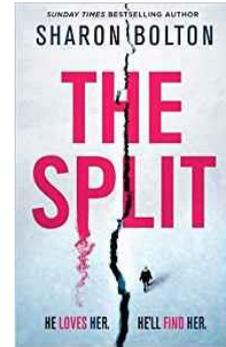
저자 : Sharon Bolton

출판사: Trapeze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읽는 내내 손 끝에서 냉기가 느껴지는 흥미로운 스릴러**

펠리시티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1년 전,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도피를 위해 머나먼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장기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감옥에서 복역하다 형을 마치고 갓 출소한 그의 전 남편 프레디는 다시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이번만큼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펠리시티는 옛 비밀과 끈질긴 그의 추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펠리시티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마치 지독한 암처럼 그녀의 몸과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펠리시티는 이제 지구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도망쳐와 있었지만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우기엔 이곳 역시 역부족인 것만 같았다. 남반구에서는 이제 곧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인 3월 말 펠리시티는 사우스 조지아 섬의 얼음이 가득한 바닷속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 섬의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남극 조사단과 섬의 박물관 직원들 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섬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선원들 외의 외부인들은 거의 올 일이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이제 곧 겨울이 오면 얼마간 외부 세계에서 배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펠리시티는 애써 안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곧 마지막 배가 한 척 더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불안해진 펠리시티는 서둘러 해저 탐사를 끝내고 항구로 향했다. 항구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섬 밖으로 나갈 배가 정박 중이었고 다음 항로가 열리는 계절까지 한동안 들어오지 않을 문제의 마지막 배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항구 주변을 서성이던 펠리시티는 곧 그 근처 항구 사무실 안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간 밤에 여행객들이 주최한 해변 파티에서 큰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았다. 몇몇 사람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남자를 찔렀다며 그 여자를 빨리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경찰도 없는 이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 내기란 꽤 어려워 보였다. 워낙 어두운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증인들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외모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밤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이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채 하나 둘 사무실을 떠나자 펠리시티는 재빨리 사고가 난 승객들의 승선 목록에 혹시 전 남편 프레디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 해보기 위해 서류를 몰래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다섯 장이어야 할 그 서류들 중 마지막 한 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펠리시티는 연구소 동료 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한다는 핑계로 근처 버드 섬으로 잠시 피신하기로 다짐했다.

그 시각, 얼마 전 감옥에서 나온 프레디는 한 배에 타고 있었다. 그는 며칠간 객실에만 있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척추 오른쪽에 난 끔찍한 상처를 들여다보며 그 상처가 분명 칼에 심하게 찔려서 발생한 상처임을 알아챘고 프레디에게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프레디는 자신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그곳에 있는 도서관에서 칼 부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중 배에 엔진이 달려 있지도 않았던 먼 옛날, 한 괴짜 부부가 함께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탐험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 일화에 감명을 받아 지금 바로 그 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프레디는 이제 배가 사우스 조지아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판대로 나갔다. 프레디는 망원경을 통해 섬의 작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 건물 등 중 하나에 펠리시티가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조용히 웃었다. 그는 배에서 내리기 전 얼마간 생존에 필요할 단백질 바와 스위스제 군용 칼, 손전등과 함께 사우스 조지아 섬에 펠리시티가 탐험을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와 그녀의 사진을 다시 꺼내 꼼꼼히 확인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한편 해변에서 일어난 칼 부림 사건의 용의자 밤버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섬에서 살고 있던 여자였다. 귀신을 볼 줄 아는 그녀는 밤이 돼서야 거리로 나섰고 그 옛날 이 섬에 살며 고래를 수렵하던 사냥꾼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는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귀신들의 친구가 되었다. 썩은 고래 고기와 석탄이 뿜는 냄새가 밤의 해변을 뒤덮고 있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 밤거리에서는 더 다채로운 냄새들이 났지만 밤버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녀는 피를 원했다. 그래서 그날 밤 해변으로 가 그 남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겨우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밤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며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면 안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밤버는 재킷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은 1년 전 펠리시티가 이 섬으로 오기 위해 영국의 자택에서 나오던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널 죽일 거야.'라는 의문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펠리시티와 그녀를 쫓고 있는 프레디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둘의 관계에 있어 밤버는 또 어떤 존재일까? 빙하가 가득한 외딴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냉기 가득한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샤론 볼튼은 (Sharon Bolton)은 여러 차례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며 늘 평단의 찬사를 얻고 있는 작가이다. 전작으로는 『Now You See Me』, 『Little Black Lies』 등이 있다.

제목 : BEFORE THE RUINS

가제 : 폐허 앞에 서서

저자 : Victoria Gosling

출판사: Serpent's Tail

발행일: 2020년 7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 과거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어느 날, 앤디는 어린 시절 친구 피터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앤디는 철없는 시절 자신이 벌였던 과거의 일과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4월 막바지 무렵, 어느 수요일 앤디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피터의 엄마 패트리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패트리샤는 약 한달 동안 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혹시 그의 소식을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앤디 역시 일주일 전 자신의 서른 여덟 번째 생일에 피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터라 마침 의아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앤디는 패트리샤에게 자기 외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는지 물었다. 그러자 패트리샤는 '모든 일이 다 터져버린 그 날'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날 이후에도 피터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가 앤디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는 패트리샤의 부탁대로 직접 피터를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후 앤디는 결혼식장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앤디와 '모든 일이 다 터져버린 그 날'과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지만 앤디는 그의 말을 막고 말았다. 그리고 피터가 실종된 지금 앤디는 이제 곧 그 때의 일을 다시 한 번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다. 그날 밤, 피곤에 지쳐 잠이든 앤디는 꿈에서 다시 과거의 그 저택으로 돌아갔다. 당시 열 여덟 살이었던 앤디와 피터, 엠 그리고 앤디의 남자친구였던 열아홉 살 마커스 이 네 사람은 마커스가 삼촌한테 빌려온 차를 타고 1996년 6월 20일, 처음으로 그 저택에 갔다. 그 날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점쳤던 날이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날 저택 주변은 아름다운 호수와 쾌청한 하늘, 풀밭이 어우러져 아름답기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이아몬드에 관한 사실을 알기 바로 직전, 그들은 '데이비드'라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앤디는 당시 목시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종말을 주제 삼아 농담을 하는 와중에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친구들에게 하루만 더 이 저택 근처에 머물다 가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저택의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견이 이 곳을 순찰하고 있다는 경고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 저택은 소유주의 사망 이후 재산권 문제로 난항을 겪던 중 경매에 나온 건물이었고 약 1년 전 누군가가 이 저택을 샀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여러 번, 사람들이 이 저택에 강제 침입한 적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이 집을 손보곤 했던 마커스의 삼촌이 낯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둔 상태였다. 호기심이 생긴 앤디와 친구들은 경고문을 무시하고 몰래 저택의 담을 넘어 저택 마당으로 들어갔다. 앤디와 그녀의 친구들은 어차피 지구의 종말이 곧 닥쳐올 테니 이 정도 비행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논치였고 친구들이 있는 지붕에서 내려온 앤디와 마커스는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앤디는 지붕 위, 피터 곁에 서 있는 어떤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당황했다. 그를 먼저 만난 피터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데이비드'라는 남자로 앤디의 또래였고 이 저택을 소유한 가족과는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 그는 이 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국인이지만 지금은 사업차 미국에 있으며 가을에 이 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는 데이비드가 꽤 잘생긴 남자였고 자기들 중 그 누구보다도 이 곳에 올 권리가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불청객이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불편해졌다. 또한 피터와 데이비드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챘다.

저택에서 데이비드를 만난 그날 이후 친구들은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에 또 한 번 그 저택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이웃 이스트 부인 덕분에 그 저택에 얽힌 뜻밖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부인이 열두 살이었을 무렵 1936년, 그 저택에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도난 되는 바람에 런던 시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였지만 끝내 도둑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다이아몬드 또한 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스트 부인은 말을 마치며 앤디에게 그 목걸이는 아마 그 저택 근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앤디라면 아마 그 목걸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속삭였다. 앤디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들려주었고 곁에 있던 데이비는 이 날 이후 갑자기 앤디에게 은밀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앤디는 다이아몬드에 관해 신이 나서 떠드는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진짜 도둑,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고 싶다는 호기심에 사로 잡혔고 그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앵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도난당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비슷한 가짜 목걸이를 이용해 진짜 도둑이 진품을 가지고 다시 저택에 나타나도록 유인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이 게임은 결코 철없는 십대들이 벌인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데이비드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친구들의 우정은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다이아몬드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 또 피터의 실종과 과거의 이 사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빅토리아 고슬링 (Victoria Gosling)은 맨체스터 대학교와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작가들과 독자들을 위한 살롱을 개최하는 'The Reader Berlin'의 창립자이며 'The Berlin Writing Prize'의 기획자이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SPACEHOPPER

가제 :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자 : Helen Fisher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1년 1월 7일

분량 : 263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시간여행을 통해 어린 시절을 보상 받고 싶은 한 여자가 과거와 현재 삶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

어린 두 딸의 엄마인 페이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 엄마와 함께 하는 삶과 사랑스러운 두 딸의 어머니로 사는 삶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

페이에게 있어 유일한 가족이었던 그녀의 엄마 지니는 페이가 겨우 여덟 살이었을 무렵 세상을 떠났다. 이제 서른 일곱 살에, 두 딸의 어머니이자 성직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의 남편이 된 그녀에게 엄마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커다란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엄마가 있는 삶, 엄마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궁금했고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는 그 삶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과연 성직자의 아내가 될만한 사람인지, 종교인의 파트너가 되기엔 스스로가 너무나 비종교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남편 에디는 언제나 그녀가 좋은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늘 남편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혹시나 그녀가 남편에게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면 남편은 아마도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다. 그리고 설사 그 이야기를 모두 믿는다 해도 더 나아질 건 없었다. 남편이 그 모든 일을 믿게 된다면 그는 그녀를 멈추려 안간힘을 쓸 것이 뻔해 보였다. 그 중요한 일이란 시간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다. 그 일은 한 사진과 상자로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고 여기서 그 '시작'이란 매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 문제의 그 사진은 바로 페이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요리책에서 떨어진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주인공은 1977년 크리스마스에 찍힌 바로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해는 페이의 엄마가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이기도 했다. 당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진 속 어린 페이는 스페이스 호퍼 (어린이들이 위에 올라탈 수 있는 커다란 고무 공)가 들어 있는 상자 위에 앉아있었다. 페이는 그 사진을 보자 마음 속에 껍껍 눌러 담았던 간절한 소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페이는 한 번만이라도 다시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페이는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생각하듯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엄마를 추모하고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따뜻한 차에 비스킷을 먹으면서 피와 살이 그대로 있는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 사진을 발견한 후, 페이는 마치 부적처럼 그 사진을 어디든 갖고 다녔다. 페이는 그 사진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엄마의 죽음과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길 바랐다. 페이는 당시 엄마가 병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체 무슨 병으로 죽은 것인지 왜 엄마가 평소 누워있던 침대가 아닌 페이가 모르는 낯선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고 싶었다. 페이는 그 사진을 볼 때면 왠지 모르게 페이가 앉아있는 스페이스 호퍼 박스에 눈길이 갔다. 왠지 그 박스만 있으면 엄마와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다. 얼마 후 페이는 집 다락방에서 그 상자를 찾아냈다. 페이는 그 상자를 다듬은 후 사진 속 그때처럼 다시 그 상자에 앉아 보았고 어떤 기억이든 떠오르길 바랐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무릎을 모아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 때 그녀는 갑자기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페이는 순간 자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공중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폭포수가 떨어질 때 나는 굉음이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점차 속도가 느려지더니 눈 앞에 밝은 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곧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신이 사진 속 그 트리 곁에 있는 스페이스 호퍼 박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안이 병병해진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녀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한 풍경이었고 몇 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겨우 그 상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자 엉덩이와 허리를 가로지르는 찢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동시에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소속감이 그녀의 온몸을 뒤덮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락방에 있었던 모습과 똑 같은 모습이었고 이 곳은 사후세계도 꿈 속 세상도 아닌 현실 그 자체였다. 페이는 용기를 내어 엄마의 침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굳히 잠들어있는 그녀의 엄마 지니가 있었다. 페이는 엄마의 숨결을 느끼며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익숙한 냄새와 온기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렸다. 페이는 곧 허기를 느꼈고 부엌에서 잼과 빵을 가지고 나와 집 헛간으로 갔다. 그녀는 헛간의 틈 사이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고 품에는 어린 시절 소녀 페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페이는 자신이 비로소 시간여행자가 되었으며 언제든 엄마를 이렇게 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엄마의 죽음을 막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것은 곧 지금의 자신의 인생, 남편과 두 딸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하는 삶 그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페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엄마와 딸, 시간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헬렌 피셔 (Helen Fisher)는 영국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수석 평가자로 일한 바 있고 지금은 웨스트 서퍽 칼리지에서 일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첫 소설 『Twenty Questions for Jeanie Greene』이 있다.

## NON-FICTION

제목 : 99%: MASS IMPOVERISHMENT AND HOW WE CAN END IT

가제 : 빈곤층 99%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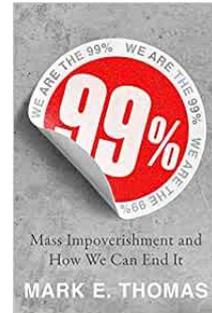
저자 : Mark Thomas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9년 8월 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제



**\*"자신의 미래 혹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는 있지만 경제에 관한 책을 읽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전 BBC 상임 경제 특파원, 휴 팜.**

세계적으로 경제의 규모는 계속 성장 중인데 반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젊은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확률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현대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이와 함께 전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책의 저자 마크 토마스는 바로 그 초기 징후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우리 경제에는 초록 불이 켜진 상태였고 주식시장 역시 언제나처럼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민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였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태세였다.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분명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큰 조각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답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저자 마크 토마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대규모 빈곤'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당장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아무리 파이가 커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작은 조각의 파이를 갖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 시민의 99%에 달하는 초 다수가 빈곤 계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현상은 시작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찍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린 지 오래고 그 어떤 때보다 깊은 무력감에 빠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비율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2050년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그 2050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빈곤과 절망이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며 그 책임과 고통은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우선 빈곤율, 사회적 계급의 이동성, 전반적 생활 만족도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영미권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슷한 위기를 겪은 바 있는 역사적 순간들에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 특히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2차 세계 대전 직후. 당시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우려와는 달리 자본주의 황금 시대를 맞은 바 있다.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미래에도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단순한 경제 및 사회 모델을 분석하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빈곤의 역사를 끊어내는 방법과 번영의 역사를 모색해보는 책이다.

### <목차>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 제 0 장 : 경제,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다섯가지

- 경제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다
- 돈은 치명적이다.
- 흐름과 가치, 둘 다 중요하다.
- 국내 총생산은 만들어진 전체적 흐름이며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 어떤 가치를 누가 갖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 1 부 : 불타고 있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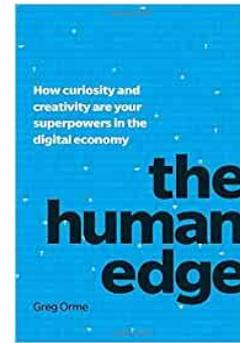
##### 제 1 장 : 불안의 시대

- 오늘날의 경제 정책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 가고 있을까?
  - 2050년
  - 정말, 정말 나쁜 소식
  - 숫자로 인한 실패
  -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 (이하 생략, 총 3부 16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마크 토마스 (Mark Thomas)는 인생의 대부분을 비즈니스계에서 보냈다. 그는 오랫동안 PA Consulting Group에서 전략 실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비즈니스 전략의 도구와 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깨달았고 2050년이 오기전 다가올 위기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작으로는 『The Complete CEO』, 『Zombie Economy』 이 있다.

제목 : THE HUMAN EDGE  
가제 : 4차 산업 혁명이 두렵지 않은 이유  
저자 : Greg Orme  
출판사: Pearson Business  
발행일: 2019년 11월 21일  
분량 : 29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날이 갈 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년 전 일어난 산업 혁명은 인간의 팔과 다리를 대신했지만 이제 막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의 두뇌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구상 생명체들 중 가장 뛰어난 지능과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부하던 인류는 이제 그 자부심마저도 잃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까지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서나 떠올렸던 질문들이 이제는 매일 아침 보는 뉴스의 헤드 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인간은 정말 사이보그가 되고 있는 중인 걸까? 슈퍼 컴퓨터가 마치 인간 처럼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인간의 지능이 기계의 지능을 이기게 될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우리 인류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

일명 '혁신 전문가'인 저자 그렉 옴은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 속에서도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AI가 이제 곧 우리의 동료 혹은 파트너가 될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책은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이 기술과 함께 살아가게 될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탐구해보는 책이다. 그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술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미래에도 여전히 인류가 번창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인공 지능과 경쟁하고자 하는 태도를 버리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세운 전략들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간만이 타고난 호기심을 발화할 것.

둘째, 게임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창조성을 재발견할 것.

셋째, 동료 인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산업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는 열정과 추진력,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잃지 않으려는 연계성을 개발하는 것.

이 세가지 전략은 놀랍게도 저자가 전세계 비즈니스 관리자들과 조직과 연계하여 실험한 작업

들에서 이미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최신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와 성공한 기업가들이 가진 독특한 철학, 위대한 예술가 및 디자이너, 과학자 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의 관행을 분석하여 4차 산업 혁명의 소용 돌이 속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유유히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래에서도 굳건히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유용하고도 흥미로운 지침서이다.

## <목차>

### 제1부: 인간이 맞이하게 될 도전

제1장.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우리가 인공지능과의 경쟁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과 차별화된 존재가 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

제2장. 프랑켄슈타인에게 인사하기

-인공지능, 로봇 인간과 당신은 어떤 다른 점을 가질 수 있을까?

제3장. 누가 당신의 상상력을 훔쳐갈 수 있을까?

당신의 잠재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제2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

인식

제4장. 목적성이 가진 힘

- 인간이 가진 네 가지 특성을 발휘하게 만들 동기를 찾아내는 방법

제5장. 당신만의 레이저를 발화시켜라

(이하 생략, 총 2부 11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그렉 옴 (Greg Orme)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고방식 코치, 연사이자 작가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경영자들과 350여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으며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가들과 조직이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 그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강사이며 프로그램 디렉터이며 'Centre for Creative Business'의 설립자이다.

제목 : THINKING LIKE HANNA ARENDT

가제 : 한나 아렌트처럼 생각하기

저자 : Lyndsey Stonebridge

출판사: Cape(UK), Hogarth Press(US)

분량 : 약 380 페이지

장르 : 인문, 에세이



**\* 한나 아렌트 같은 사상가가 다시 절실하게 필요해진 세상에서 그녀의 궤적을 쫓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책.**

196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나 아렌트의 철학과 저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현상은 다시 우리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한 암울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이자 한나 아렌트 연구자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린제이 스톤브리지 교수는 한나 아렌트가 암울한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는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날 유럽에는 더 이상 죽음의 수용소도 없고 새벽이 되기 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태워가는 기차도 없다. 한밤 중에 갑자기 사라지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독재자나 검열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대신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민자 수용소가 있다. 영국의 수용소들 중에는 무기한으로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떼어놓는 수용소가 있다. 또한 프랑스에는 난민들이 진흙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머물고 있는 임시 수용소들이 있다. 이 때문에 파리, 포틀랜드, 베이루트,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난민 출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당국의 눈을 피해 도시 한 복판에서 은밀히 돌아다닐 수 있을지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난민들은 1940년대에 나치군들을 피해 달아나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죽음의 배'에 올라타 지중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는 공공연하게 혐오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권력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인류는 점점 존엄성과 신성함을 잃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든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 아렌트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나 아렌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을 관찰하고 점검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저자는 한나 아렌트처럼 생각하는 법 배운다는 것은 정치적 도그마, 상투성, 성급함, 단순한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결코 쉬운 훈련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위험한 사고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방법이다. 저자는 프랑스를 통해 독일에서 뉴욕으로 가는 아렌트의 망명 여행길을 직접 되짚어 가면서 아렌트가 그 어두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생각하는 훈련'을 실행했는지 보여준다. 아렌트는 당시 위험한 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철학은 전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저자는 아렌트의 저서들이 '아랍의 봄'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녀의 비판에 따르면 오늘 날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 설명한다. 또한 현대 유럽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짓말의 정치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정치적 안정망이 붕괴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나 아렌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같은 유약한 개인들이 어떻게 사고하면 될지 안내해주는 책이다.

### <목차>

서문 : 오늘날에도 아렌트처럼 생각하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 1 장 :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올바르게 사고 하는 법 : 하노버와 함부르크에서 마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베를린 그리고 뉴욕에 이르기까지

제 2 장 : 인종 차별과 반유대주의 : 베를린과 리틀 락, 아칸소.

제 3 장 : 난민 : 파리, 마르세유, 리스본, 뉴욕 및 바다 위 난민 캠프.

제 4 장 : 사랑하는 것 : 거스에서 리버 사이드 드라이브까지.

제 5 장 : 이데올로기, 테러, 나무 : 샌프란시스코의 프라이부르크

제 6 장 : 혁명 : 베이루트.

제 7 장 : 악의 평범함 : 예루살렘 / 알 쿠드

(이하 생략, 총 10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린제이 스톤브리지 (Lyndsey Stonebridge )는 버밍엄 대학교의 인문학과 인권 전공 교수이다. 스톤브리지 교수는 주로 난민 연구와 그들의 인권 및 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저서인 『Judicial Imagination』으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Rose Mary Crawshay'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라디오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목 : ARTISTS' LETTERS

가제 : 예술가들의 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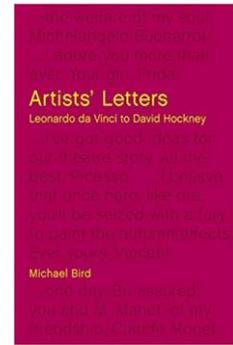
저자 : Michael Bird

출판사: White L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10월 2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예술



**\*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통해 그들의 예술관, 사랑, 인생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수많은 유명 화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때로는 펜과 글로 그림 속에서는 차마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책에 수록된 90 편에 달하는 예술가들의 편지는 생생한 서양 예술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지들 중에는 1482 년경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 밀라노의 폭군이라고 불렸던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보낸 이력서부터 시작해 1995 년경 신디 셔먼이 예술 평론가인 아서 C. 단토에 보낸 감사 편지까지 예술계의 별들이 주고 받은 서신이 포함되어 있다.

저자 마이클 버드는 먼저 그림과는 다른, 편지만이 가진 매체의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질문한다. 편지 전시 전문 큐레이터인 메리 사비그에 따르면 특히 손 편지는 '종이를 무대로 펼쳐지는 언어와 예술이 펼쳐는 공연'과도 같은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편지들은 주로 손이나 타자기, 팩스기로 작성된 편지만의 독특한 물성을 가진 존재이며 언젠가 다시 펼쳐 보거나 접을 수 있고 때론 재킷 주머니에 들어가 구겨지거나 책갈피 대신 사용될 수도 있었다. 또한 어떤 편지들에는 실수로 생긴 커피 얼룩, 심지어는 쥐가 문 자국도 남아 있다. 즉, 편지라는 매체에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과 우연으로 인한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아날로그식 손 편지들은 점차 메일 혹은 짧은 메시지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친구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에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거의 다른 점이 없다. 19 세기 영국 화가인 벤 니콜슨은 그의 아내가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도 바바라 험워스에게 그림다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고 1956 년 미국의 추상 표현 화가였던 리 크라스너는 그 즈음 파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자신의 난봉꾼 남편 잭슨 폴락에게 함께 있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편지들은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의 부재에 대한 감각보다 좀 더 다른 깊이를 가진 감성들을 보여준다.

'친구 혹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 '동료 예술가들끼리 주고 받은 편지', '안부 인사 편지'등등 총 여덟 가지 주제별로 정리 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사랑, 일, 일상, 돈, 여행 및 창작 과정에 대해 엿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우정을 주제로 한 편지들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있어 동료 예술가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들 사이에서 결성된 창조적 공동체는

예술적 성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위대한 예술가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천재 외톨이'가 아니라 상당히 사회적인 인물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은 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 받았으며 클로드 모네와 베르데 모리소는 서로에게 끊임 없는 찬사를 보내며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자처했다. 실제 편지 스캔본과 관련 작품이나 드로잉이 포함된 이 책에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까지 수록 되어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점점 잊어가는 편지만의 특유의 감성과 위대한 작품 뒤에 숨어 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 <목차>

####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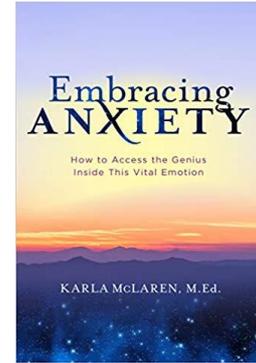
#### 제1장: 가족과 친구 '새로운 기린을 봤어.'

- 살바도로 달리가 폴 엘루어드에게
  - 프란시스코 고야가 마르틴 사파테르에게
  - 루시안 프로이트가 스티븐 스펀더에게
  - 바네사 벨이 던컨 그란트에게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리오나르도 부오나로티 시모니에게
  - 필립 구스틴이 엘리제 애셔에게
  - 베아트릭스 포터가 노엘 무어에게
- (이하 생략, 총 8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마이클 버드 (Michael Bird)는 작가, 예술가이자 라디오 방송인이다. 저서로는 9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베스트셀러 『100 Ideas that Changed Art』와 여러 화가들에 대한 전문서 및 『The St Ives Artists: A Biography of Place and Time』이 있다.

제목 : EMBRACING ANXIETY  
가제 : 불안함과 친구하기  
저자 : Karla McLaren  
출판사: Sounds True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분량 : 248 페이지  
장르 : 심리



**\*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  
『How Children Thrive』의 저자, 마크 버틴**

인간이 느끼는 무수한 감정들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꿈, 실패, 승리 혹은 폭력 및 사랑의 행위 등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감정이란 결코 단순한 감각의 산물이라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분위기에 취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 칼 맥 라렌은 각각의 감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마다 타고난 능력과 천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은 우리의 보호자이자 든든한 친구 같은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안내자라고 말한다. 또한 이 책의 주제인 불안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안은 사실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중한 감정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질병 혹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편견이 생긴 데는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중 첫 째는 우리가 감정이 인간의 지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단 한번도 제대로 들어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감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합리성 혹은 영성 연구에 비해 그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으로만 경험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와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우리는 불안이 주는 선물을 간과하고 그 결함에만 집중하도록 학습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포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감정에 접근하고 마침내 불안을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안증은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심지어는 백신이 없는 강력한 전염병처럼 인류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자 카를라 맥라렌은 이는 불안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지나친 우려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평생에 걸쳐 감정, 공감 및 인간 행동을 연구한 저자는, 동적 감정 통합 (Dynamic Emotional Integration, DEI)이라고 불리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감정에 대한 존중도를 높이는 접근법을 개발했다. 이 접근법을 통해 그녀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 수준의 감정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데 성공했고 우리 안에서 통합된

다양한 감정들이 어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밝혀냈다. 저자는 이처럼 불안 역시 다양한 감정들과 결합하여 한 개인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단,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불안이 불균형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자는 왜 불안이 고통스럽거나 파괴적인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불안을 잘 활용하여 우리 삶의 생산적인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불안이라는 감정과 친구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다.

### <목차>

#### **제 1 부: 불안 되돌아보기**

- 제 1 장: 불안이 가진 예지능력과 집중력 포용하기
- 제 2 장: 인간이 가진 네 가지 주요 감정 만나보기
- 제 3 장: 인간이 가진 감정적 천재성을 기르기 위한 마음 챙김 습관
- 제 4 장: 의식적으로 불안에 대해 질문하는 습관이 가진 힘

#### **제 2 부: 불안이 다른 감정들과 협업을 이룰 때**

- 제 5 장: 두려움, 혼란, 공황과 불안의 차이점
  - 제 6 장: 공황과 불안
  - 제 7 장: 불안과 분노 사이에 명확한 선 긋기
- (이하 생략, 총 3부 10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카를라 맥라렌(Karla McLaren)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 사회 과학 연구원이자 ‘Dynamics LLC’의 CEO 이다. 저서로는 『Dynamic Emotional Integration Workbook』, 『The Art of Empathy』, 『The Language of Emotions』 및 『Multimedia Online Course』의 저자이다.

제목 : A LONG DAY TOO SHORT

가제 : 그땐 몰랐던 여성 천문학자 이야기

저자 : Donovan Moore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

분량 : 293 페이지

장르 : 전기



**\* 아무도 들어 보지 못한,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인 가포슈킨'의 전기**

‘그녀’는 에드워드 시대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되면 그녀의 바람대로 천체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여자들이 대개 그랬듯이 결혼으로 인생을 끝 맺을 운명이었다. 그녀는 신앙보다 과학을 더 신봉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192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동기들 및 교수들 사이에서 극심한 성차별과 편견을 견뎌내야 했다. 결국 케임브리지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곳을 떠나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서 천문학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논문을 써내는데 성공했다. 학계의 신뢰를 얻게 된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천문학 수업 강의를 했지만 이는 공식 수업 계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업이었고 당시 하버드 대학교 학장은 그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한, 여자인 그녀가 교수직을 맡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얼마 후 그녀는 나치 독일을 떠나 미국에 온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지만 그의 특유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해야했다. 그리고 끝내 이 모든 것을 견뎌낸 그녀는 하버드 대학의 최초 여성 교수이자 학부장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의 이름은 바로 ‘세실리아 페인 가포슈킨’이다.

세실리아 페인 가포슈킨은 별의 구성 성분을 발견한 혁신적인 과학 사상가였지만 다른 유명 남성 천문학자인 허블이나 허셜과는 달리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는 세상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아무리 천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일지라도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도노반 무어는 혹독한 가부장제의 질서 속에서 그녀가 견뎌야 했던 시련들과 장애물,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녀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소개한다.

중산층 가정의 삼 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세실리아 가포슈킨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사와 과학에 폭 빠진 신동이였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재능과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자 했던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의 어머니는 세실리아의 열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들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딸들은 그저 몸과 마음을 잘 간수하다가 적당한 때에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린 세실리아의 재능을 익히 알아본 한 교사 덕분에 그녀는 장학금을 받고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을 배우게 되었고 어느 날 유명한 한 천문학자였던 아서 에

딩턴의 연설에 감동 받은 그녀는 천문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세실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인 그녀에게 학위를 딸 권리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의 지도 교수는 그녀에게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자 엄청난 도전이었다.

훗날 동료들은 세실리아 가포슈킨을 두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천문학자'라고 찬사를 보냈고 그녀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업적에 걸맞은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잊혀졌던 한 위대한 천문학자의 삶을 소개하는 뜻 깊은 전기이다.

#### <저자 소개>

도노반 무어 (Donovan Moore)는 저널리스트 보스턴 글로브, 피닉스지, NBC에서 서 근무한 바 있으며 롤링스톤즈에도 글을 기고한 바 있다.